



관방제림 옆에 자리한 담양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에서 두 개의 전시가 열린다. VR미디어아트 전 '리폼(REFORM)'과 청년작가 황수빈 작가 개인전이다. 본관과 신관, 카페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축북원 등 담양의 명소 나들이와 더불어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이성웅 작 'Water Drop'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월호

연방



담빛예술창고에 펼쳐진 '눈부신 빛'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가로 산다는 것' 고싸움놀이 남구 칠석마을 '광주한바퀴'

◇리폼(REFORM)전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수십 개의 종이 박스를 쌓아올린 구조물 위로 영상이 쏟아진다. 작가 폴 바주카는 지난 2020년 초 무등산 서석대를 처음으로 올라보려 마음 먹었다. 코로나로 인해 산에 오르는 것을 멈춘 그는 대신 종이 박스로 상상 속의 서석대를 만들고, 절경 속에서 있는 느낌을 담아 댄스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다. 등산객들도 만나기 어려운 '서석대의 밤풍경'을 상상해 제작한, 사운드아트와 LED 조명이 어우러진 작품 'DEEP@서석대'다.

폴 바주카의 작품으로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풍자를 담은 영상물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다'도 함께 나왔다.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리폼(REFORM)전'(27일까지)은 낯음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기획전으로 사운드아트와 홀로그램, VR미디어 아트, 설치 작품 등이 어우러진 전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위기, 산업사회 이후 소비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등 현대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답한 기획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재생'되어야 하는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살펴본 전시다.

이성웅 작가의 작품 'Water Drop'은 영상과 설치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한방울 한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물에 이어 바로 옆에 설치된 작품은 물방울을 재해석,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가느다란 전선에 매달린 수백개의 작은 조명이 만들어내는 작은 원형은 마치 파문을 일으키는 모습이며, 조명 사이를 가로지르는 판넬 위에 놓인 작은 의자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수목화의 고정관념을 깨 와사달의 '모난돌의 물과 목이 없는 수목화'는 VR로 제작된 콘텐츠를 공간형 콘

폴 바주카·이성웅·정재엽 참여
VR미디어아트·설치작품 '리폼전'
우주를 그리다 '황수빈 개인전'

텐츠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R&D 연구원 출신의 디지털 콘텐츠 디렉터 '모난돌'은 와사달의 테크니션 디렉터로 참여해 360 VR 제작된 2D그래픽 기반의 수목화 미디어아트를 수목화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표현방식을 달리 해 재해석했다.

정재엽 작가의 '정원의 건너편'은 본관 2층과 신관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자유자재로 구부러진 나무 조각과 실제 식물, 흙 등이 어우러진 작품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 인류와 자연 공생의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관에 설치된 작품은 탁 트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짜' 자연의 모습과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준다.

◇황수빈 작가 개인전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먼 우주가 떠오른다. 미지의 세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 별들의 반짝거림이나 새로운 물질의 폭발 등이 어른거린다. 다채로운 색감이 만들어내는 뿌연 화면과 신비롭고 몽환적인 풍경은 상상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이끈다.

서양화가 황수빈 작가가 '꺼지지 않는 빛'(27일까지)을 주제로 담빛예술창고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황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우주와 인간과의 경계를 허물고 캔버스 안에 창조적 다양성을 여러 빛으로 풀어낸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이고 있다.



황수빈 작 'chaos'

스스로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말하는 작가는 "우주는 갈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몸으로 느끼고 감지하지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공간"이라며 "상징적인 형상과 색채들을 조합해 우연적인 효과를 담아내려 했다"고 설명한다.

우주와 인간의 신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동질성을 찾아내는 작가는 우주와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간의 무한 확장과 축소를 상상하며 인간 존재 근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황 작가는 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이번 전시가 다섯번째 개인전이다.

/담양=글 사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타임머신' 타고 모차르트·비발디 시대로

광주시향, 18~19일 문예회관 소극장...리코더 연주자 권민석 협연

모차르트, 비발디 등의 음악을 들으며 고전주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 정기연주회 '타임머신'이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과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모음곡'을 연주한다.

공연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로 시작한다. 이 곡은 1788년 작곡된 곡으로 격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러 활발하면서 빠른 기교를 요구하는 리코더의 반전매력을 만날 수 있는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을 권민석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리코더 연주자 권민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과정을 수료한 뒤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학 중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 헤이그 왕립음악원 고음악과에서 리코더 전공으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몬트리올 국제 리코더 콩쿠르와 런던 국제 리코더 콩쿠르 동시에 입상하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음악회의 대미는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모음곡'

으로장식한다. 이 작품은 18세기 바로크 작곡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20세기 신고전주의를 주도한 스트라빈스키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관람 8세 이상)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리코디스트 권민석

광주시립극단,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배우 모집

광주시립극단은 제18회 정기공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8일~2월 11일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되며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특기, 자유연기다.

2016년 초연된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제53회 동아연극상을 수상했고 2016 공연베스트7, 올해의 연극3에 선정되며 화제가 됐다.

극단 골목길 박근혜 연출가가 연출을 맡으며 오는 4월 21일~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총 4회 공연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0.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